



# 365일 열린 책방, 이태원 영어도서 전문 서점

## 온·오프라인 매장 '고객, 내외국인 반반' 일반 서점서 구하기 힘든 영문서적 망라

이태원에서 한남동 방향의 이슬람 사원을 향하는 언덕배기. 사원 전방 약 150미터 지점에 영문 헌책방 'What the Book' 이 자리하고 있다. 지하 매장으로 내려가는 하얀 계단에서부터 느낌은 사뭇 다르다. 특별한 조명이 없어도 계단 맨 아래까지 비치는 햇빛과 하얀 페인트의 조화가 인상적이다. 문을 연지 3년째인 '왓 더 북' 은 영어 도서를 전문으로 취급하는 헌책방. 이곳을 운영하는 이는 미국인 크리스 치아베타(Chris Chiavetta · 35) 씨다.

**깔**끔한 책장으로 벽면을 장식한 '왓 더 북' 내부는 헌책방이 주는 '낡고 무거운' 이미지와는 판판이다. 가운데 의자 몇 개와 서가 공간을 넉넉히 할애, 북 카페라 해도 손색없는 아늑함이 와닿는다.

“처음 한국에 왔을 때는 영어강사를 했어요. 그러다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에게 일반 서점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책을 파는 영문도서 서점이 꽤 비전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했죠.”

2000년 9월 한국땅에 처음 발을 들인 그에게 당시 한국은 그저 수많은 여행지 중 한 곳에 지나지 않았다. 낯선 한국땅에서 사업을 시작하게 된 가장 큰 동기는 역시 한국인 아내를 만난 때문이다. 그동안 사귀 친구들이 퍼뜨린 입소문도 큰 힘이 됐다.

45평 남짓한 서가와 창고에는 3만 5,000권 정도의 도서가 비치되어 있다. 모두 영어서적이고, 평범한 미국의 소설, 비소설류가 대부분이다. 처음 서점을 열었을 때 고

**왓 더 북** 객의 90% 이상이 외국인이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매출이 늘고 한국인 고객도 현재는 30%에 달한다.

**What the Book** '왓 더 북' 은 온라인 판매도 함께 하고 있다. 인터넷서점 구매에 익숙한 한국인들의 특성을 심분 고려한 전략이다. 실제로 온라인서점에선 내외국인 고객이 각기 절반씩이다. 가격도 일반 서점보다 10퍼센트 이상 싸다.

“거래횟수는 오프라인 매장이 훨씬 많지만 매출에 있어선 온·오프라인이 비슷해요. 인터넷으로 고가의 책을 주문하는 고객이 많기 때문이죠. 또 서점에 직접 찾아오는 고객들은 주로 소설류를 구입하지만 온라인 고객들은 그 종류가 다양해요. 일반 서점에서 쉽게 찾을 수 없는 도서를 직접 수입, 배송·판매하는 시스템 덕분이죠”

관객이 많다보니 365일 쉬는 날 없이 문을 여는 이곳은 3년째 큰 무리없이 운영되고 있으며, 꾸준한 성장세를 보여왔다. 단골고객도 꽤 늘어, 방문객이 매주 500여 명을 웃돈다. 인터넷 주문 시에는 배송과 수입까지 대략 6~7일이 소요된다. 오프라인 서점은 95% 이상이 헌책들이고, 인터넷은 대부분 신간이다.

“온라인 서점은 구매자의 편의를 고려, 헌책을 교환하거나 구매할 수 있도록 웹페이지를 조금씩 수정하고 있다.”는 치아베타 씨는 “영어는 많이 읽는 것이 최고인 만큼, 영어공부를 하고 싶으면 우리 서점에 많이 들러달라”고 ‘홍보성 멘트’ 를 잊지 않는다. ☞

